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 도 자 료**	보다 나은 정부

2019년 3월 11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3.10.(일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9. 3. 8.(금)	담당부서	자동차항공과
담당과장	양병내 과장(044-203-4321)	담 당 자	최혁기 사무관(044-203-4322)

수소충전소 SPC 출범, 민간 수소충전소 시대 개막!

- 수소 관련 13개 회사가 모여 특수목적법인(SPC) 설립, 1,350억원 출자 -
- 특수목적법인(SPC) 설립을 통해 수소충전소 본격 확산 기대 -
- 올해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총 100개소의 수소충전소 구축 · 운영 목표 -

□ **산업통상자원부**(장관 성윤모)는 **'19.3.11(월)**부터 **'수소충전소 특수목적법인**(SPC, 대표이사 유종수)'**가 공식 출범**했다고 밝혔다.

○ 특수목적법인(SPC)의 공식명칭은 **'수소에너지네트워크㈜'**(Hydrogen energy Network; HyNet, 이하 하이넷)이며,

○ 한국가스공사, 현대자동차 등 국내외 수소 연관 사업을 선도하는 **13개 회사가 공동으로 설립**했다.

【 수소충전소 SPC 참여기업 】

▲한국가스공사(1대 주주), ▲현대자동차(2대 주주), ▲에어리퀴드코리아, ▲우드사이드, ▲에코바이오홀딩스, ▲코오롱인더스트리, ▲효성중공업, ▲넬코리아, ▲범한산업, ▲제이엔케이히터, ▲SPG케미칼, ▲덕양, ▲발맥스기술

[추진 목적]

□ 이번 **'하이넷'**의 공식 출범을 통해 **우리나라의 수소충전소 구축·운영 사업**에도 **새로운 바람이 불 것**으로 기대된다.

○ 그간 수소충전소는 **지자체 중심으로 구축·운영**되어 왔으며, **민간**에서는 **수소충전소 구축·운영에 참여**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았다.

□ 이러한 상황에서 **기술과 역량을 갖춘 국내외 13개 기업**이 의기투합하여 **수소충전소 확산 사업**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만큼,

○ **민간 중심의 수소충전소 구축·운영 모델**을 정립하고, **제도개선**을 도모함으로써, **더 많은 민간의 참여**를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.

[추진 경과]

□ **'하이넷'**의 설립은 **정부의 수소전기차**(이하 수소차) **확산 기조**에 발 맞춰 **작년부터 본격 추진**되었다.

○ 작년 4월, 산업부·환경부·국토부 및 한국가스공사·현대자동차 등 특수목적법인(SPC) 참여기업은 **'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(MOU)'**를 체결하였으며,

○ 작년 특수목적법인 **설립모델 연구용역, 참여기업 모집** 등의 절차를 거쳐, 올해 2월 **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**를 완료하였다.

○ 2월 28일 **발기인 총회**를 개최하고, 3월초 **법인설립 등기**를 거쳐, 약 1년여의 준비 끝에 **3월 11일 공식 출범**했다.

[주요 역할]

□ '하이넷'은 올해 1월 울산에서 발표한 **'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'** 등 정부의 **수소차 확산목표의 실현**에 적극 기여한다는 방침이다.

○ 정부는 2022년까지 **국내 수소차 누적 6만7천대**(수소버스 2천대)를 보급하고, 전국 **최대 310개소의 수소충전소**를 구축할 계획이다.

○ 이에 '하이넷'은 2022년까지 정부의 수소충전소 목표(310개소)의 30%를 넘어서는 **수소충전소 100개소를 구축·운영**할 계획이다.

□ 또한, ‘하이넷’은 2028년까지 **10년 동안 운영**하면서, **수소충전소의 효율화 및 규제·제도 개선, 서비스 향상** 등도 추진한다.

○ **참여기업 간 협력***을 통한 효율성 향상 등을 통해 **수소충전소의 구축비용을 절감**하고,

* 하이넷에 참여하는 완성차 업체(현대차), 수소공급업체(덕양, SPG케미칼 등), 충전소 설비업체(효성중공업, 범한산업, 제이앤케이히터, 발맥스기술 등) 간 협력

○ 수소충전소 확산을 저해하는 **각종 규제의 발굴·개선** 및 **수소차 소유자들의 불편 완화**를 위한 **수소충전소 서비스 개선**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.

[기대효과]

□ 이번 하이넷의 설립은 **국내 수소충전소 확산의 기폭제**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○ 성윤모 장관은 “우리나라의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확산을 위한 동반자로서, **수소충전소 특수목적법인(SPC) 설립을 환영**한다.”면서,

○ “수소충전소 확산의 어려움을 타개하고, 수소차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는 **민·관 협력의 가교 역할**을 기대한다.”라고 강조했다.

□ 유종수 하이넷 대표이사는 “올해 **수소경제사회**가 시작되는 중요한 시점에 하이넷이 설립된 점에 대해서 의미 깊게 생각한다”며,

○ “올해부터 수소충전소 민간보조사업에 적극 참여하여, **우리나라의 수소충전소 확산에 기여**할 계획이다.”라고 포부를 밝혔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최혁기 사무관(☎ 044-203-432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